

“파인텍 굴뚝은 금속노조 깃발이다”

파인텍 고공농성 300일 결의대회... “진짜 사장 김세권은 노사합의 이행하라”

금속노조가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300일을 맞아 “겨울이 오기 전에 굴뚝 투쟁 승리와고 공장으로 돌아가자” 라고 결의했다.

노조는 9월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스티플렉스 본사 앞에서 ‘파인텍 고공농성 300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를 열고 75m 굴뚝에서 농성 중인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을 응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플랜트노조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해 힘을 보탤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조의 요구는 노동자 다섯 명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사측은 상식적인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이 굴뚝에서 다시 겨울을 내게 할 수 없다. 저 굴뚝이 금속노조 깃발이라 생각하고 지상에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차광호 파인텍지회장이 연단에 올라 지회 투쟁 경과보고를 한 후 “단체협약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가 보장해야 함께 살 수 있는데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굴뚝 농성 말고 다른 투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다시 굴뚝에 올랐다” 라고 분노했다.

파인텍 굴뚝 농성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조현천 신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다. 우리 사회도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 돼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라며 종교계도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천 신부는 “오는 10월 3일 파인텍 하루 조합원 총회에 많은 분이 함께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조합원들은 스티플렉스 본사 앞에서 농성이 있는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앞까지 ‘스티플렉스 김세권은 노사합의 이행하라’ 라는 현수막 등을 들고 행진했다.

굴뚝 농성장 앞에 도착해 박준호, 홍기탁 조합원을 전화로 연결했다. 박준호 조합원은 “노동자 삶이 나아지려면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자” 라며 “함내겠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홍기탁 조합원은 “11월 민주노총 총과업을 통해 재벌을 위한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자” 라며 민주노총 총과업을 성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를 마무리하며 정용재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충남지부 자존심을 걸고 두 동치가 승리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 라고 충남지부를 대표해 결의를 밝혔다. 조합원들은 굴뚝을 향해 “함내라” 라는 함성을 지르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지회와 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는 10월 3일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농성장에서 ‘파인텍 하루 조합원 총회’ 를 열 계획이다. 하루 조합원은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농성장 자킴이 활동 등에 참여한다.

“국가 개입 노조파괴, 집권당이 책임져라”

유성기업지회, 이해찬 민주당 대표 면담 공개 요구... “노동존중 사회 만든다는 약속 지켜야”

노조와 유성기업지회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가가 자행한 노조파괴에 대해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라며 이해찬 대표 면담을 공개 요구했다.

노조와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는 9월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민주당 대표 면담 요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지회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 논평 발표 직후 당 대표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어 공개적으로 다시 당 대표 면담을 요구한다” 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이해찬 대표와 9월 11일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당에 공식 전달했다. 민주당은 당직자를 내려보내 공문을 직접 받았다.